

# 물가·금리 '비상등'...수출·내수 '경고등'

## 수출 5개월째 줄며 무역수지 적자...소비 3개월째 감소 5%대 고물가 지속...미국발 금리 인상 압력 다시 가중

수출 부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내수도 주춤하면서 한국경제를 지탱하는 2개의 주력 엔진이 모두 꺼지는 상황이 연초부터 연출되고 있다. 5%대 고물가는 쉽사리 완화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최근에는 미국발 금리 인상 압력이 다시 한번 가중되는 양상이다. 경기 반등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역시 물가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면 호재만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다. ◇수출 5개월째 감소...소매판매도 3개월 연속 줄어=5일 정부 당국과 경제계에 따르면 한국경제를 지탱하는 두 축인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부진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2월 수출액은 501억 달러(66조3825억원)로 작년 같은 달(541억6000만 달러)보다 7.5% 감소했다. 5개월 연속 수출 감소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3~8월 이후 처음이다. 반도체 수출이 1년 전보다 42.5% 급감한 것이 이런 배경이 됐다. 대(對) 중국 수출이 24.2%나 줄어든 점도 빼 아쁘다. 무역수지는 53억달러 적자를 기록, 1년째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1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全) 산업생산은 4개월 만에 반등했으나 삼성전자의 휴대전화 신제품 출시에 따른 효과일 뿐 반도체 생산은 전월 대비

5.7% 감소했다. 문제는 수출 엔진이 식은 사이 반자리를 채워주던 내수 엔진마저 식고 있다는 점이다. 소비를 대표하는 지표인 소매판매는 1월에 2.1% 감소했다. 전월 대비로 보는 지표 특성상 3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는 점도, 감소율이 2%대에 달한다는 점도 모두 예사롭지 않은 대목이다. 같은 시점 서비스업 생산은 0.1% 증가, 가가스로 플러스만 유지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소비 감소의 주범 중 하나로 고용시장의 둔화를 꼽는 분석이 상당하다. 1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작년 동월 대비 41만 1000명으로 증가 폭이 8개월째 둔화하고 있다. 특히 수출 약과 타격을 입은 제조업 부문의 취업자는 3만 5000명 줄어 1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5%대 고물가 지속...중국 리오프닝 영향 주목=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물가와 금리 등 경제 변수 역시 민생을 위협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2%를 기록, 전월(5.0%)보다 상승 폭을 확대했다. 지난해 7월 물가 상승률이 6.3%를 기록한 이후 점진적인 둔화 곡선을 그리는 듯 했으나 5%대 고물가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공공요금과 통신요금, 주류, 식료품 등 국민 체감이 큰 물가의 동결을 유도하고 있으나 이는 물가 상승 요인을 잠시 눌러 놓은 것일 뿐 하반기에 다시 분출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최근에는 중국의 리오프닝이 국제 원자재 가격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하는 시각도 늘고 있다. 중국 경제가 정상화할 경우 유가와 각종 원자재 가격이 다시 한번 상승 추동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공급 측면의 물가 상승 압력을 높여 물가 상승률 둔화 속도를 늦출 수 있다. 중국의 리오프닝이 호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 3월 빅스텝 가능성 ↑...한은 추가 금리 인상 압박=미국의 3월 빅스텝 전망이 확산하는 점도

우려 요인이다. 최근 발표된 1~2월 고용·물가지표가 모두 시장 예상치를 넘어서면서 경착륙도 연착륙도 아닌 노랜딩(No landing)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있다. 이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당분간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다. 한국은행 입장에선 추가 금리 인상 압력 요인이다. 한은은 지난 2월 1년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멈췄다가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돌파하고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는 등 곤욕을 치렀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안개가 가득하면 차를 세우고 기다려야 한다"고 했는데 안개가 걷히니 아직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는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한은이 또다시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경우 우리 경제에도 상당한 부담 요인이 된다. 가뜰이나 빠른 속도로 경기가 둔화하는 상황에서 찬물을 더 끼얹는 모양새가 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연합뉴스

## 한은 금리 동결에도 대출금리 다시 '들썩'

### 채권금리 가파른 상승세에 4대 은행고정금리도 올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행진은 일단 멈췄지만, 은행권의 대출금리는 오히려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 동결보다 미국의 통화 긴축 장기화 우려가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쳐 최근 채권금리가 뛰기 때문이다. 여기에 '돈 잔치' 경고에 따른 개별 은행의 가산금리 자진 인하, 은행별 변동금리 산출 방식 차이, 시장·예금금리의 코픽스(COPIX) 반영 시차 등까지 겹쳐 금융소비자들이 금리 추이를 가능하고 계획을 짜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3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4.410~6.522% 수준이다. 한 달 전인 2월 3일과 비교하면 상당수 대출자에게 적용되는 하단 금리가 0.280%포인트 올랐다.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의 금리가 같은 기간

0.589%포인트(3.889%→4.478%) 뛰었기 때문이다. 신용대출 금리(은행채 1년물 기준·연 5.420~6.450%)도 한 달 사이 하단이 0.270%포인트, 상단이 0.140%포인트 높아졌다. 역시 은행채 1년물 금리 상승(+0.391%포인트)과 관계가 있다. 최근 1~2주 채권금리는 가파르게 오르는 추세다. 주로 미국의 물가 불안과 이에 따른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 등 긴축 기조 강화 예상 반영된 결과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취급액 코픽스 연동)의 경우 현재 연 4.920~6.946%로 하단은 0.030%포인트 떨어졌지만, 상단은 0.056%포인트 높아졌다. 최근 은행권 대출금리의 실제 변동 폭은 지표금

리인 은행채(고정금리)나 코픽스(변동금리)보다 작은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최근 한 달 은행채 5년물 금리는 0.589%포인트 올랐지만, 이 금리를 지표로 삼는 4대 은행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 하단의 인상 폭은 절반 수준인 0.280%포인트에 불과하다. 그만큼 '돈 잔치' 비난 속에 은행들이 스스로 가산금리를 줄여 대출금리를 낮춘 결과다. 반대로 4대 은행의 한 달간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하단 하락 폭(-0.030%포인트)은 코픽스(-0.470%포인트)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오히려 상단의 경우 코픽스 인하와 상관없이 0.056%포인트 더 올랐다. 이런 현상의 원인은 주요 시중은행 가운데 일부(신한·하나은행)가 실제 적용할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산출할 때 코픽스 변동분을 기계적으로 더하거나 빼는 게 아니라, 예금금리나 채권금리 등 실제 조달금리를 따로 계산해 반영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 산단공 광주본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후원품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황상현)는 광주첨단과학기산단지역경제자립의회(회장 박인철)과 지난 2일 어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방문해 후원품을 전달했다. (사진) 이날 첨단산단지역경제자립의회는 제11대 회장으로 박인철 신임 회장이 지난 달 27일 취임한 것을 기념, 산업단지 인근 취약계층을 위해 쌀 100kg과 마스크 1만장 등을 기부했다. 박인철 회장은 "올 한해 높은 금리와 원자재가

격 인상, 인력난 등 중소기업의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때 취임하게 됐다"며 "앞으로 중소기업과 지역사회가 어려움을 이겨내고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상현 본부장은 "최근 급격한 경기악화로 위축된 취약계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 협의회와 함께 정기적으로 나눔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고병일 광주은행장과 임직원들이 '고행사랑기부제 동참 캠페인'을 통해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 광주은행 "고행사랑기부제 동참해 주세요"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최근 본점 KJ상생마루에서 고병일 광주은행장과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행사랑기부제 동참 캠페인'을 펼쳤다고 5일 밝혔다. 고행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에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해, 기부금액 전액 세액공제와 기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이에 광주은행은 고행사랑기부제에 대한 임직원들의 관심을 높이고, 동참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캠페인을 실시했다. '기부로 나누고 답례로 감하는 고행사랑기부제에 나부터 참여해 홍보하고 적극 전파하자'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고병일 은행장은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고행사랑기부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힘을 보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에 따라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이끄는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고행사랑기부제 활성화에 솔선수범하기 위한 임직원들의 관심과 동참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캠페인의 취지와 내용이 임직원들과 더불어 지역민과 고객에게도 널리 전파돼 고행사랑기부제 참여가 확산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5년간 연평균 취업자 10만명 증가에 그칠 듯"

향후 5년간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인구 감소 탓에 10만명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5일 한국은행 박양수 경제연구원장과 김도완 거시경제연구실 과장이 작성한 '우리나라 취업자 수 추세의 향방은?'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국내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 등으로 전년보다 82만명이나 늘었다. 하지만 증가 폭이 작년 중반부터 줄기 시작해 올해 1월에는 41만명(전년동월대비)까지 감소했고, 한은 등 많은 전망기관은 올해 전체 증가 폭이 약

10만명에 머물 것으로 보고 있다. 2023~2027년 5년간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가 규모를 추정해 보면, 7만~12만명 수준에 불과했다. 단기 변동성이 컸던 코로나19 기간을 포함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산하면 7만명, 이 기간 데이터를 빼면 12만명이었다. 박 원장과 김 과장은 이런 현상이 고용절벽 때문이라기보다 인구감소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머지않은 장래에 10만명 부근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일자리가 창출

되지 않은 것보다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 공급 증가 추세 둔화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생산활동이 가능한 15세 이상 인구가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산 문제 때문에 15세 이상 인구 증가 폭이 줄어드는 데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연령 도달로 생산가능 인구 수(15~64세)는 2018년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축소되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잠재성장률이 노동공급과 자본·총요소의 생산성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MZ세대 55% "주 3~4일 일하고 1~2일 휴무"

전경련, 2030 근로자 조사... '매일 8시간 주 5일' 44.7% 답해

'MZ세대' 직장인 절반 이상은 현행 근로시간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30대 근로자 702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에 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행 근로시간 제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지 묻는 항목에 절반이 넘는 57.0%가 '적합하지 않다'고 답했다. '매우 부적합'이 12.7%, '다소 부적합'은 44.3%였으며, '다소 적합'과 '매우 적합'은 각각 36.6%, 6.4%로 나타났다. 연장근로에 관한 인식 설문에서는 '노사 합의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연장근로 가능'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8.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득 향상을 위해 연장근로 적극 희망'은

11.7%로 총 60.1%가 연장근로 제도를 유연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연장근로를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는 응답은 39.9%였다. 근로시간과 업무 성과가 비례한다는 응답은 55.1%였고,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근로시간 운영방식으로는 68.1%가 혼근로시간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업무량 또는 개인의 업무 집중도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을 꼽았다. 선호하는 근로시간 유형은 55.3%가 '필요 시 주 3~4일만 몰아서 일하고 주 1~2일 휴무'를 선택했고, 전통적 근로시간 체제인 '매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는 44.7%였다. 응답자 중 유연근무제 활용 경험이 있는 이들의 73.5%는 유연근무제가 업무성과와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 중소·중견기업, 퇴직자 재취직 도우면 보조금

올해부터 중소·중견기업도 퇴직을 앞둔 근로자의 재취직을 지원할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노사발전재단은 올해부터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사업장뿐 아니라 300인 이상 999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재취업지원 서비스 운영 실비지원 제도'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3년 이내에 퇴직할 예정인 노동자에게 진로 설계, 취업 알선, 재취업·창업에 대한 교육 등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해 재취업지원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1인당 50만원씩, 총 5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이달 6~31일, 6월 5~30일, 9월 4~29일 세 차례에 나눠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로또복권 (제1057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8	13	19	27	45	12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1,616,069,714			17
2	5개 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6,895,880			664
3	5개 숫자일치	1,545,870			2,962
4	4개 숫자일치	50,000			146,471
5	3개 숫자일치	5,000			2,461,496